

## GCF와 어큐먼 펀드, 사업이행을 위한 협정에 서명, 동아프리카 가정에 태양에너지 공급

2016 2016.8.4, 뉴욕 - 녹색기후기금(GCF)과 어큐먼 펀드(Acumen Fund)가 자금지원활동협정(Funded Activity Agreement, FAA)에 서명하면서 민간부문인증기구인 어큐먼 펀드의 사업이행을 위한 자금 배분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다. GCF 사업 중에서 FAA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FAA 체결로 어큐먼 펀드는 GCF 재원을 수령하여 저소득층에 오프그리드 태양력 전기 공급을 위해 동아프리카 비계통 에너지 가치사슬(off-grid energy value chain)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어큐먼 펀드 사업은 태양력 기술을 르완다와 케냐의 비계통(off-grid: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농촌에 우선 제공, 우간다에 2차로 확대 제공하면서, UNFCCC의 목적뿐만 아니라 UN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GCF 이사회는 2015년 말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2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헬라 쉬흐로흐(Héla Cheikhrouhou) GCF 사무총장과 새친 루드라(Sachin Rudra) 어큐먼 펀드 최고투자담당관(Chief Investment Officer, CIO)이 각 기관 대표로 FAA에 서명했다.

쉬흐로흐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GCF가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이다. GCF 사업 중 어큐먼 펀드 사업이 처음으로 자금분배 단계로 나아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동아프리카 지역사회에 독립형 태양에너지 제공에 있어 어큐먼 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드라 어큐먼펀드 CIO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으로 GCF와 협업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독립형 태양에너지를 농촌지역 저소득가정에 제공할 것이다. 이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1천5백만명이 혜택을 입고, 케로신과 디젤이 대체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0만 메트릭 톤이 감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어큐먼 펀드(Acumen Fund, Inc.)는 빈곤층을 위한 비영리 글로벌 벤처 펀드다. 기업, 지도자, 아이디어 투자를 통해 세계의 빈곤퇴치 방법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2001년 설립된 어큐먼 펀드는 인도주의 투자자금과 운용 투자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성, 빈곤문제 해결에 힘쓰는 혁신기업 100 여 개를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에 설립하는데 1억1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어큐먼 펀드는 GCF 인증기구이다.

녹색기후기금(GCF)은 유엔기후변화협정(UNFCCC)의 194개 회원국이 설립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지원을 위한 기후행동 자금지원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 GCF에 공약된 자금 액은 100억 달러 이상이며, 그 중 4억2천만 달러 가량을 집행했다. GCF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 25억 달러 투자 승인을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